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 입당감사 찬양제

# 열렸다 하늘 문이

### -26일(토) 오후5시 본당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개 교회를 위한 칸타타가 작곡되어 공연하게 되었다.  
교회설립 9년만에 서울교회에 새 예배당을 주심을 감사하여 이종윤 목사가 시를 쓰고 박정선 집사가 곡을 붙인 전 8장의 대곡으로 독창과 합창, 3중창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통적 교회음악의 바탕 위에 현대적 기법의 극적이고 웅장한 한국적 정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것으로 소프라노 김해정, 테너 허희철, 바리톤 이태훈이 독창을 맡고 그레이스 핸드벨 팀이 협연한다. 이 날 지휘는 박정선, 오르간 조은주, 피아노 강민희가 각각 맡게되고 6개 연합찬양대원들에 의해 불려지게 된다.

'열렸다 하늘 문이(Open now thy gates of Heaven)'를 작사한 이종윤 목사는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한다.

작곡가 박정선 집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작곡한 「열렸다 하늘 문이」는 자기 일생에 가장 기억할 만한 작품이라고 했다.

이제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린다. 한국교회와 교회음악계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5월26일(토) 오후5시에 서울교회 본당(3300석)을 가득 채우는 만당 운동을 벌리자고 찬양위원장 김상철 장로는 제안했다.

## 2001홍해작전 임박 “임하소서 성령이여”

### -6월6일(수)~25일(월) 새벽5시-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앞에서 진퇴양난에 직면 했을때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던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회,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아뢰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위기를 극복 하자는 취지의 기도운동이다.

지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9회 동안 계속된 홍해작전에 연인원 약 6만5천명이 참여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였으며 수많은 홍해가 우리의 기도작전에

정복당한, 100% 승리의 작전이었음을 우리모두 자신 있게 증거 할 수 있다.

2001년도 홍해작전은 '임하소서 성령이여 (행1:8)' 라는 주제와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사 60:1) 라는 표어 하에 일곱 가지 기도제목과 4개의 행동강령으로 온 가족이 질서 있게 참여하여 나의 홍해, 가정의 홍해, 교회의 홍해, 민족국가의 홍해를 갈라 해결 받는 승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야겠다.

### 이번주 이모저모



①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는지 보시옵소서  
-특별제직회, 7대장로 후보 투표

② 비전2020- 이 젊은이  
의 군 생활을 지켜주옵소서

### 금주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개역개정판 엡 6:1-4)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NIV Eph 6:1-4)

## 7대 장로 선출을 기도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7대 장로 후보 20명이 지난주일 제직회를 통해 오늘 본지(3면)에 소개되었다.  
은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에 기뻐하실 일꾼을 정하고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정케 된다. 본 교회 등록된 세례교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를 기억하지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오는 10월 28일 예선을 거쳐 11월4일 본선을 갖게 된다.  
이번 성경암송대회의 범위는 '요한일서 전장'으로 성도들은 미리 준비하며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기쁨을 함께 맛보도록 하자

## 오늘은 스승의 주일

교육의 장이 무너져 내리는 당금의 현실. 참 스승과 참 제자를 찾아보기 어려워 모두가 참 스승을 그리는 이 때에도 변함없이 스승의 주일이 돌아왔다.

성도된 우리는 이 세대를 한탄만 하거나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 스승의 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여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 하여야 할 것이다.

# 열렸다 하늘 문이

## OPEN NOW THY GATES OF HEAVEN

### I.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만물 지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지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지여

하늘 문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하늘 문 여시고  
구원 내려 주소서

영광과 존귀  
권능과 지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 II.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고난의 짐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주  
우리들은 소리치며  
그분을 몰아 내었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음산한 바람소리  
하늘은 빛을 잃고  
땅은 진동했다.  
찢기운 살과 흐르는 피  
내 아픔 이견만

고난의 짐 지고서야  
보이는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 지신 그분께로 나가자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 III. 외로우시리

빌라도 법정에 어두움 덮였네  
귀먹고 눈 먼 이들 아우성치며  
가시관 씌우고 채찍질 했더니  
피와 눈물로 채워진 비아돌로로사!

십자가 십자가  
죄인이 가는길  
광란의 군중들 조롱과 저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늘도 땅도 침묵한 비아돌로로사!

인간의 슬픔안고  
적막한 언덕 위에 우뚝 선  
끌고다 십자가는 외롭게 말하네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 IV.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호와여 나를 부르셨나이다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나이다  
불탄 포도넝쿨 같은 나를  
불 속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에 기쁨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햇불을 높이 들라  
영생의 말씀을 크게 외치라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 V.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민족 서 있던 자리는  
광야 같은 세상  
수치와 슬픔 뿐  
손을 뻗어보아도 닿는 것 없나네

가거라 너의 길  
포기하지 마라  
찾아라 너의 길 생명의 길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자리에 쓰러진 나!

은혜의 강 넘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은  
바다를 이루었네

빈 들 광야에 주님 제셨네  
빈 들 광야에 모든 것 있다네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 VI. 열렸다 하늘 문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열렸다 하늘 문이

환희와 감사의 노래 부르자  
내 사랑 서울교회여  
너는 독수리로 태어났구나  
어여쁜 자 서울교회여  
네게는 힘찬 날개가 있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진리와 함께  
훨훨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땅이 진동하는 폭풍 속에서도  
유유히 하늘을 나른다  
매일 새 힘을 받아 사는  
내 사랑 서울교회여  
네게는 힘찬 날개가 있구나  
훨훨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 VII.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큰 은혜일세 큰 은혜일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세우셨네  
눈물로 드렸네  
기도로 쌓았네

세우셨네 세우셨네  
하나님의 장막 영화롭게 세우셨네

믿음으로 지었네  
희생으로 드렸네

영광일세 영광일세  
오고 오는 후손들  
주의 장막에 가득 찼네  
민족과 세계를 향한 복된 소리!  
온 누리에 가득 찼네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 VIII. 순례자의 노래

여호와와여!  
여호와와여!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살아 계신 주  
살아 계신 주  
그곳에 계시는이니다.

여호와와여!  
여호와와여!  
이른 비의 은혜가 있나이다  
살아 계신 주  
살아 계신 주  
우리로 주의 성전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뵈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이 있을 지어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지어다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아멘

**\* 비아돌로로사(via dolorosa):**  
슬픔의 길, 빌라도의 관에서부터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길을 말한다.

위에 실린 시는 이번 26일(토요일 오후 5시)에 연주될 칸타타 '열렸다 하늘 문이'(성시 이종윤 목사, 작곡 박정선 집사)의 내용이다. 실로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처음부터 순조롭게 예배당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때 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뜻을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지만 아무튼 아름다운 한티 공원을 등에 업은 이 곳에 서울교회 예배당이 세워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나큰 축복이며 기적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2년 전부터 찬양제를 생각하신 이 목사님은 예배당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바라보면서 시를 구상하셨고 여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 이번 칸타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찬양의 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행위원회는 이번 찬양제에 본당 3,300석이 만당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서울 교회 성도는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찬양제에 참석해야 겠거니와 주변의 많은 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7대 장로 후보 명단



1. 홍성주



2. 이복규



3. 임상현



4. 신순우



5. 김세재



6. 전기섭



7. 신용식



8. 박두영



9. 이관규



10. 허희철



11. 조정식



12. 박정선



13. 최학인



14. 오광환



15. 오형철



16. 황정욱



17. 김영주



18. 탁경준



19. 이태상



20. 홍정선

번호	이름	생년월일	임직년도	학력	직업	가족	봉사 부서
1	홍성주	46.3.10	1994	대학원졸	교원(청원여고 부장교사)	여연진권사 2여	에바다부부장, 학원선교회회장, 베들레헴찬양대, 비전2020본부요원
2	이복규	47.5.12	1994	대학원 수료	(주)리얼티 소프트 부사장	한영순 집사 1남1여	유아부 부장, 스데반회 간사, 베들레헴찬양대
3	임상현	53.10.2	1994	대졸	변호사	서희숙집사 3여	대학부부장, 필그림대장, 법률상담팀장, 디락방장
4	신순우	40.9.25	1999	대학원졸	공직자(산림청장)	김복순 집사 3여	장년5부부장, 베들레헴찬양대, 비전2020본부위원
5	김세재	51.2.2	1997	대학원졸	(주)스프리스 대표이사	이운진권사 1남1여	재직회서기, 새 가족부부장, 스데반회 서기, 순례자 편집위원, 디락방장
6	전기섭	49. 1. 29	1988(장로)	대졸	(주) 한국바이린 대표이사	원영애 집사 1남1여	2교구장, 시온찬양대장, 장년부 교사, 디락방장, 베들레헴 찬양대원
7	신용식	52.10.5	1997	대졸	(주)르본 대표이사	김신영집사 2남	스데반회총무, 예배위원회 서기, 베들레헴찬양대 부대장, 실업인선교회총무, 김치세미나
8	박두영	36.5.15	1997	고졸	상업	전행자권사 2남	디락방장, 교육5부부장, 경로대학 총무, 상조회에배부장, 현금계수위원
9	이관규	48. 11.25	1994	초졸	운유식품	이순영집사 1남1여	3부인내위원, 3부 현금계수위원, 베들레헴찬양대원
10	허희철	47.12. 25	1994	대졸	(주) 희승 산업이사	이연숙권사 2남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 디락방장, 음악교실 강사
11	조정식	51. 5.14	1994	고퇴	대원에너지 사장	김영식 집사 1남1여	유년부 부장, 상조위원회 총무, 임마누엘 찬양대, 베들레헴 찬양대
12	박정선	45.1.26	1994	대학원졸	단국대 음대교수	김남순권사 1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13	최학인	46. 1. 17	1986(장로)	대졸	(주)마니카 품질관리실장	최소희 권사 1남1여	할렐루야 찬양대, 베들레헴 찬양대, 8교구교구장, 전도위원회 회계, 40대부 교사
14	오광환	50.3.8	1997	대학원졸	(주)슬빛 건설 자영	이안순 집사 1남1여	고등부 부장, 교육위 행정부장, 갈렘찬양대 대장, 실업인선교회 회원분과위원장,
15	오형철	39.6.3	1997	대졸	영일상사 대표	신동기 권사 1 남1여	시온찬양대 부대장, 차량부 서기, 실업인선교회 기도분과위원장, 스데반회 선교부장
16	황정욱	40.7.9	1994	대졸	(주)삼흥통운 대표이사	주경사 권사 1남2여	장년3부 부장, 베들레헴 찬양대, 디락방장
17	김영주	40.12.12	1997	대졸	북한연구회 연구위원	이애순 권사 1남2여	현금계수위원, 시온찬양대, 베들레헴 찬양대, 상조위원회 서기, 모세선교회 총무
18	탁 경준	42.4.20	2000	대졸	(주)정진도장공업 대표이사	전성숙 권사 2남	새가족부 교사, 베들레헴 찬양대, 비전2020, 70인전도대, 5교구 간사
19	이태상	43.7.17	1997	대졸	요식업	김희숙권사 1남 1여	갈렘찬양대 지휘자, 장년1부 부장
20	홍정선	41.9.21	1997	고졸	충천영농대표	강중자 권사 1남1여	현금계수위원, 디락방장

# 스승의 주일



## 교사 직분을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해

나기태(유년부 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은혜 감사해 주님 사랑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갖춰지지도 못한 교사직분을 맡아, 봉사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은 희미하지만 한남동 비탈길 판자 집을 심방하고 돌아 나올 때 무거웠던 발걸음, 주일 아침이면 결석한 어린이를 찾아가 잠을 깨워 데리고 오던 일... 학교 앞 교회 앞 건널목에서 사랑스런 아이들을 기다리며 전도했던 시간들..

그때 교사직의 첫사랑을 되돌아보면 말주변도 없는 저에게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생겼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12월25일 새 예배당으로 입당을 하고 가족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었을 때, 익숙지 않은 예배에 몸을 비틀고 하품을 해대던 우리 유년부 아이들, 5개월이 접어든 지금 예배를 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떨 만큼 안정이 되었습니 다.

"하나님의 선택이 뭐죠?"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짬 한 거예요" 라는 그 퐁퐁퐁퐁한 대답들...

아무리TV나 인터넷이다 하는 세상유혹이 많을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아이들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날마다 떠돌고 장난만치는 줄 알았는데,

컷등 너머로 들던 그 말쑥들이 마음속에 떨어져 그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신 주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쓰임이 어린이들의 가슴속에 복음이 자라는 밑거름이 될 수만 있다면 영원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스승의 날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스승'이라 부르는 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훌륭한 스승들'이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특히 지난 92년부터 매주 2-3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준 이종윤 목사님은 내가 자라오면서 만난 그 어느 스승보다도 많은 가르침을 전해준 '스승'이다.

사실 그 분과 대화를 오래 나눈 적도, 그 분의 가정이나 사적인 삶에 대해 별로 아는 바도 없다. 그럼에도 그 분과 나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꾸준히 만나왔고 가르침을 받아왔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배운 설교 말씀의 분량은 학창시절 배운 그 어떤 과목보다도 많은 양이었다. 또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학을 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렇게도 오랜 동안 배운 과목치고는 그리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부끄럽다. 그 분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도 성실히 해가지 못했고 삶 속에 주어진 '시험'도 설교를 통해 그 분이 가르쳐 준 대로 풀어나가지 못했다. 그저 내 방식 대로였고, 내 맘 대로였다. 이러하니, '신앙과목'에 있어서 나는 열등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못한 제자가 의외로 스승을 더 감동시

키는 경우가 많다. '신앙 열등생'인 제자지만 훌륭한 스승들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를 다짐한다. 또 인간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기도한다.

스승의 날에..

김민철 <편집부>

## 꼭 기억해요.

- 1) 나눔의 집 : 개장시간 변경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오후 6시 30분까지만 개장합니다.  
다른 날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매일 받고 있습니다.)
- 2) 장례규정 :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출석교인 소전 시는 담임목사님이 발인예배를 집례하고, 출석하지 않은 시는 분의 소전 시는 교구목사님이 발인예배를 집례합니다.  
장례가 발생하면 교구목사님에게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3) 결혼규정 : 담임목사님의 주례는 학습교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하며,  
담임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례를 하십니다. 식사와 사진 등은 교회의 규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성도는 먼저 교구목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를 기억합니다  
일시: 10월 28일(예선) / 11월 4일(본선), 범위-요한일서 전장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5) 간식을 드시고 뒷정리를 반드시 합시다.  
우리는 전국을 바라보는 일등시민입니다. 이에 걸맞게 각부서에서 간식을 드신후 반드시 뒷정리를 하여 흔적이 없도록 하여 뒤에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합시다. 특히 주일에 음식물 반입은 금합니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4일(목) 연목회, 연세 기독교 동문회, 연세 신과대 동문회 총무단 초청 학원 복음화를 위한 연석 좌담회를 개최한다.
- 장애회 권사 상조위 갈렙찬양대 가운 50벌 기증
- 3교구 17 다락방 이향옥 성도 독남
- 이성근집사, 김영린집사(11교구) 종합광고대행사 'will'개업
- 임동규집사, 문창숙집사(11교구) 등산장비업 'SIERRA'개업

### ☐ 목회자 세미나 식사 제공 가정 :

이관규 집사, 이순영 집사 가정 고기 70근 기증  
김중자 권사 가정 간식 제공  
한길동 집사, 박영옥집사 양상추 3박스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제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9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III부 오후 9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등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